



지난 31일 오전 8시9분께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 내 원당중공업 1공장에서 조립중이던 160t급 모래운반 바지선에서 폭발 사고로 2cm 두께의 선박 블럭이 종이처럼 찢겨져 있다. /영암=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정부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포기”

“폐막 두달 넘도록 부지매각 손 놓고 청산에만 골몰”... 시민단체 반발

여수세계박람회 개막이 막을 내린 지 두 달이 넘도록 박람회장 사후활용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가 사후활용을 책임 질 별도기구 창설을 미루고 있고, 부지 매각 등도 늦어지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1일 전남도와 여수시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박람회 부지를 매입할 업체를 찾는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6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지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 면적이 65만㎡에 달하고, 정부의 선(先) 투자자 전혀 없어 기업들이 꺼리고 있는 것이다.

또 사후활용을 맡아 진행하게 될 별도기구 설립도 늦어지고 있다. 여수세

계박람회 조직위는 현재 박람회 정산 업무에 집중하고 있고, 사후활용 작업에는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박람회 폐막 후 “광주·전남지역에 남은 것은 영구 시설인 아쿠아리움밖에 없다”는 불만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남해안 크루즈 관광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박람회장 내 크루즈 부두도 대부분 시설이 철수하고, 연간 운영비 24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사실상 폐쇄됐다. 또 박람회장 부지 매각이 늦어지고 있어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단지를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사후활용 방안은 울스톱 상태다.

이 같은 정부의 무관심을 성토하는 지역민의 목소리도 높다. 여수엑스포 시민포럼과 진주 YMCA 등 전남 동부와 경남서부 등지의 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남해안권 시민사회단

체 모임’은 최근 성명을 내고 ‘엑스포가 끝난 뒤 크루즈터미널이 정부의 운영비 중단으로 두 달째 방치돼 있는데, 이는 사후활용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31일에도 ‘세계박람회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사후활용계획 수립 촉구’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애초 계획했던 여수엑스포의 사후활용 계획을 헌신적책임을 버리고 사후청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정부가 제대로 된 여수박람회 사후활용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청와대 및 중앙부처, 제18대 대통령선거캠프 등에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전달하고 관철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대불산단 조선소 폭발 11명 사상

근로자들 “가스 냄새” 호소 불구 모래 운반선 용접 강행

영암 대불산단조선소 내 조선소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2명 숨지고 9명이 부상을 입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원인조사에 나선 경찰은 전날 작업팀이 미처 가스밸브를 잠그지 못하고 철수한 뒤 밀폐된 공간에 가라앉은 가스가 용접 불꽃에 폭발한 ‘인재(人災)’로 보고 있다.

최근 조선업의 쇠락과 함께 잦은 인력 교체, 수주 감소로 인한 저임금 기술자 투입 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기사 3·6면>

지난 31일 오전 8시9분께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 내 원당중공업 1공장 내 160t급 모래 운반선(바지선)에서 LP가스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선체 내부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오모(여·47)씨와 베트남 외국인근로자 A(40)씨 등 2명이 숨지고 박모(35)씨 등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중앙·기독·한국병원 등 목포지역 3개 병원과 전남대병원 등으로 이송

됐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이들은 원당중공업 협력업체인 민주이엔지 소속으로 선체 조립을 위해 선박 내부와 상판에서 각각 용접과 그라인더 작업 등을 하고 있었다. 이 선박은 일본 업체인 아나세로부터 원당중공업이 하청을 받아 민주이엔지에 재하청을 줬 지난월부터 제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 가운데 철관조립팀 4명은 이날 처음으로 현장에 투입됐다.

이날 사고 직후 현장조사에 나선 경찰은 공장 내부에는 용접작업에 필요한 LP·산소·탄산가스 등 100여개의 밸브가 설치돼 있었으며, 전날 작업한 뒤 인부들이 미처 LP가스를 잠그지 못해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LP가스는 기온이 내려가면 밀폐된 공간에 가라앉는 특성이 있어 밤새 가스가 누출되면서 폭발 강도가 두께 2cm가 넘는 강철블럭까지 찢을 정도로 강했다는 것이다. 선

박 내 환풍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가라앉은 많은 양의 가스를 빼내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작업자들은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나자 문제를 제기했지만 업체 측이 환풍기가 있다며 작업을 강행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상을 입은 박모(35)씨는 “마스크를 쓴채 선박 위에 올라갔어도 가스 냄새가 심해 (업체 관계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환풍기가 돌아간다고 작업 개시를 지시했고, 10초 뒤 3~4차례 폭발음이 들린 뒤 정신을 잃었다”고 당시 참혹한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인근 조선업체 관계자는 “조선업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숙련공들은 일감이 있고 조금이라도 임금을 더 주는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잦다”며 “철저한 안전교육이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생략되는 경우도 있고 작업 도중 기술자가 바뀌는 경우도 많다”



영암 대불산단 조선소 폭발사고

경찰은 1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문기관과 함께 합동조사를 벌여 사고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과 119는 부상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업체 측의 과실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잘못이 드러나면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영암·목포=문병선·김병관기자

새누리 “내년 호남 예산 적극 반영”

영남 출신 의원 20~30명 ‘호남특위’ 구성

새누리당이 ‘불모지’인 호남 공약 위해 지역인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내년도 광주·전남지역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박근혜 대선 후보를 비롯한 새누리당이 ‘호남 구애’에 진정성을 보이려 이번 예산 국회에서 지역현안사업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광주일보 10월31일자 1면>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100% 국민통합위원회’(이하 통합위)는 지난 31일 광주·전남지역의 애로사항이 주로 내

년 국비 예산문제일 것으로 보고 국회 예결위의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대통합위 산하에 영남 출신 국회의원 20~30명으로 구성된 ‘호남특위’를 만들어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를 잇따라 돌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는 민주통합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호남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두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호남특위가 가동돼 광주·전남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힘을 줄 경우 황우여 당 대표가 대표실을 광주로 옮겨 당무를 보며 ‘호남 구애전략’을 펴는 것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환기자 golee@kwangju.co.kr

本社人事

▲鄭銀朝 원도주재 국장:
편집국 서부취재본부장 겸임
(11월 1일자)

광신대학교

2013학년도 학부 수시 2차
원서접수: 11. 12(월)~16(금)
2013학년도 대학원
원서접수: 11. 12(월)~30(금)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주 중심 총장로 복합쇼핑몰

the Road Hills
더로드힐스

**광주의 중심 총장로 상권에 품격이 다른 멋진 길!
유럽형 스트리트몰이 탄생합니다!**

새로운 비전 / 다양한 콘텐츠의 아이템을 중시합니다.
20~30대의 선호도가 높은 아이টে으로 까다로운 입점기준을 통한 보다 나은 콘텐츠를 제공하려 합니다.
개성이 강하고 좋은 아이টে으로 경영을 인정받은 오너분들에게 입점의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쇼핑하는 유럽스타일 스트리트형 복합쇼핑몰

- 입지특성 | 젊음의 거리 황금길 초입에 위치 - 유동인구광주 최다
- 교통환경 | 접근성 우수 - 지하철도 역 5분거리 중앙로 대로변 위치(최다 버스노선)
- 시장성 |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에 따른 상권의 활성화 광주최고의 쇼핑가(총장로·황금길)
- 건물특성 | 기존 건축물의 층개념이 아닌 계단이 없어 계속 이어지는 형태의 스트리트형 쇼핑몰

40.3m / 46.7m / 66.0m / 83.4m / 96.9m / 127.5m / 139.7m

시행 mod entertainment | 시공 S | (주)송학건설

12월말 오픈예정

기회를 잡아라!

- 신속상가입점에 따른 **권리금 無**
- 최다 유동고객에 의한 광주권 **최고 중심상권**
- 최소 투자비**
- 전문가에 의한 지속·체계적 **홍보관리**

충별 이벤트 공간 제공
전문 홍보관리팀 상주근무

the Road Hills

임대(분양) 문의 062.232.9106
010.4064.9106

*본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및 내용, 문구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 또는 표기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홍보물의 개발 및 교통계획에 대한 사항은 추후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 무관합니다.